

# 國家 發展과 大學의 役割

金 東 炫

(成均館大 行政學科)

## 1. 序 言

오늘날 우리의 大學은 급격한 社會變動의 渦中에서 是認되고 正當化되어 왔던 자체의 本來的 性格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大學이 안고 있는 '主體性的 危機'라고 하고, 또한 일부에서는 이를 '正統性的 危機'로 지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大學의 運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한 轉換期에 처해 있으며, 우리 사회는 大學 內部에서 環境의 급속한 變化 속에서 심각한 變革을 경험하고 있다.

大學이란 본래 眞理 探究의 場이며 社會의 正義를 온전히 지켜주는 知性的 요람이다. 그것은 과거·현재·미래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는 大學 本然의 使命이다. 大學이란 한 나라의 知的 卓越性的 상징이며 眞實을 崇尚하는 意志의 表徵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앞에 목격되는 大學의 現實은 外部의 世俗的 자극에 대해서 마저도 순간순간 危機感을 느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지경에까지 당도해 있다. 급속한 環境的 變化에 대한 大學의 當惑감과 非主體的인 대응은 오랫동안 大學이 누려 왔던 權威에 대한 믿음을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는 모든 韓國의 大學이 共通的으로 직면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狀況인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認識하면서 본 글의 目的은 大學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大學과

國家間的 關係는 어떠해야 하며, 끝으로 大學教育의 理念과 使命에 따른 韓國 大學이 나아가야 할 大學의 座標를 定立해 보는 데 있다.

## 2. 大學教育의 理念과 使命

大學의 발달 단계를 보면 그 教育 理念은 指導者의 養成, 教授의 眞理 探究, 學問의 自由 및 社會奉仕 등의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大學教育의 이념은 진리 탐구와 학문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 職業과 社會奉仕의 요구에 따라 美國의 實用主義的 學問 傾向이 우리 大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요컨대 指導者的 人格의 배양을 이념으로 하는 古典的 大學과 眞理 探究의 學問을 이념으로 하는 近代 大學 그리고 社會奉仕를 이념으로 하는 現代 實用主義的 大學은 각기 발전 단계라기보다는 綜合된 現代 大學의 이념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學問은 理性으로 하는 진리의 탐구이다. 학문에 前提되는 것은 眞理와 學者이다. 學者는 진리를 사랑하며 眞理는 학자를 靈感한다. 학자와 진리의 交感 속에서 學問의 大學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는 학자를 초월한 客觀的인 존재인가? 당연히 그렇다. 學者를 초월한 客觀的인 존재로서의 眞理를 認定하지 않는다면 학자가

진리를 탐구할 수도 없고 학문은 성립하지 못할 것이다. 진리는 學者의 理性에 의하여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을 떠나서 진리의 인식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데, 진리 그 자체는 이성에 의한 認識의 限度에 의하여 制約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眞理의 客觀性을 인정함에 의해서만 학문은 객관적으로 성립되며 學說의 相異 또는 學問의 進歩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설의 상이는 진리에 대한 파악의 상이이며, 학문의 진보는 진리에 대한 인식의 진보인 것이다. 그것은 絕對的·普遍的·客體的인 存在로서의 진리에 대한 相對的·個別的·主體的인 認識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學說의 相異 또는 學說의 進歩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학설은 달라도 學問으로서의 同一한 基礎 위에서 있기 때문에 自己 學說에 대한 충실과 다른 학설을 취하는 사람에 대한 관용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眞理는 世界的 存在의 基底인 理念이며 또는 세계에 內在하는 法則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를 존재시킴과 함께 세계에 내재하며 世界로 하여금 세계답게 하기 위한 이념 또는 법칙이 진리인 것이다. 세계는 空想의 存在는 아니며 具體的인 實在이다. 따라서 진리는 具體性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결코 하늘에 뜬 空想的·抽象的인 觀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진리는 世界와 不可分한 것이며 最高의 實在를 세계라고 한다면 진리는 세계, 세계는 진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사랑, 즉 眞理愛만이 學問的 精神의 實體이다. 이러한 학문적 정신을 완성함으로써 독창적 학문이 나타나며 또한 世俗에 대한 學問의 權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학자의 겸손과 研究心, 진리를 위해 싸우는 투쟁 정신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반대로 學問的 精神이 희박한 곳에서는 학문이 융성할 수가 없고, 가령 있다면 거기에는 단순히 形式을 갖추기 위한 모방적·단편적·피상적인 知識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韓國의 學問이 빈약하다고 하면 그것은 학문적 정신의 빈곤에 의한 것이라

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학문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적 정신을 함양해야 하며 학문적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眞理에 대한 探究力을 진흥시켜야만 가능할 것이다.

學問的 精神은 모든 교육 기관을 거쳐 배양해야 하겠지만, 특히 指導的 地位는 學問의 최고 학부인 大學이 되어야만 한다. 大學의 본래의 목적은 品性의 도야라는 倫理的 生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정신의 함양이라는 學問的 生活에 있는 것이다. 大學은 설교하는 곳이 아니라 講義하는 곳이다. 즉 大學은 學問을 해야 할 最高의 機關이다. 따라서 大學의 目的으로 되어야 할 것은 品性의 도야가 아니라 學問的 精神의 함양이다. 이와 같이 학문적 정신의 함양에 留意하는 길만이 學問의 進歩·發達을 위해 大學이 해야 할 大學 특유의 길이라 하겠다.

大學은 眞理 探究의 최고 학부이기 때문에 大學의 學問的 自由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絕對的으로 自由로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 탐구에 관한한 大學의 自由는 다른 勢力에 의하여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단, 自由를 政治的 目的으로 생각할 때는 大學도 사회 제도의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政治的 自由가 실제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大學이라도 國法을 떠나서까지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다. 즉 國法을 무시해 가면서 자유를 지킬 수는 없다. 그런데 정치적 자유의 문제와 학문 탐구의 자유를 혼돈하여 大學 스스로가 學問的 自由를 제한한다면 학문적 정신의 진흥과 국가 발전의 大業을 성취시킬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大學의 自由는 절대적인데 이는 당연히 大學이 眞理 探究에 충실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외부에 대하여 大學의 自由를 주장하는 사람은 大學內의 學問的 規律의 존엄성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으로 大學은 社會의 一部이다. 그러므로 社會의 파동은 大學에도 미치게 되고 大學은 社會와 함께 苦心하게 되며 社會와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다. 大學이 정치의 노예가 되지 않고 眞理의 權威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大學이 社會의 苦心事를 의면하면서 思想의 遊戯에 빠져

버린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大學은 社會의 苦痛을 함께 고심하면서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永遠한 意味를 갖는 合理的 解決의 길을 제시하고 苦悶하는 社會의 희망이 되고 良心을 갖는 存在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 國家와 學問

學問은 世界 完成을 위한 人間 業務의 하나이며 인류 社會의 고민을 스스로 해결·구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政治와 결부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해서 學問하는 그 자체가 政治的이며 정치적이 아닌 학문은 학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반드시 學問을 政治的 手段 또는 侍女로 만들어도 좋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學問은 政治의 指導者나 정치 지혜로 정치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환언하면, 이것은 學問이 國家의 利益 爲主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요컨대 學問에 의하여 국가는 바른 國家가 되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學問(眞理)은 國家보다도 고도의 根源的 實在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느냐를 올바르게 지시해 주는 것이 바로 學問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국가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眞理에 의해서 存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學問의 範圍와 內容은 국가의 需要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학문에 의해서만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학문은 眞理의 探究이며 아울러 敎育하는 學府이므로 大學의 목적은 國家思想의 함양에 한정시켜서는 안 되며 또한 이에 치중해서도 안 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진리를 위한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며 진리는 국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眞理에 대한 論者의 認識 不足에 기인한다 하겠다. 만약 진리가 抽象的인 概念에 불과하다면 '진리를 위한 진리'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무의미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모든 實在의 基底이며 根源이므로 自己目的的인 것이며, 眞理 이외의 實在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진리의 탐구도 또한 自己目的的이며

진리 이외의 이익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진리를 위하여 탐구하는 것만이 學問의 實體이며 동시에 세계·국가·인간 등 모든 實在에 대한 사랑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를 사랑하며 세계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 반면에 眞理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뜻에서 세계·국가·인간까지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 4. 韓國 大學의 座標

한국 大學이 추구해야 할 좌표는 大學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不滅의 理念인 自律性을 되찾아 權威를 회복해야 하며, 진리 탐구와 자유 정신의 고양에 더욱 헌신하고 全人敎育의 이상을 實踐하는 데 더욱 熱과 誠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大學은 知的 完壁性의 성취 및 연구와 敎育에 있어 實效性 또는 適實性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기 산업 社會인 情報社會가 보다 人間化된 면모를 구비하기 위해서 大學은 敎科課程을 통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인간형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 1) 大學의 自律性과 權威

大學에 있어 自由보다도 귀중한 문제는 없다. 대학의 자유는 學問의 自由, 良心의 自由, 언론·출판 등 表現의 自由와 상통하는 民主主義의 一般 原理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의 자유는 大學의 目的으로 볼 때도 보장되고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大學은 학문 연구 및 敎育의 正當이기 때문이다. 학문이라는 것은 진리의 탐구가 그 목적인 만큼 어떤 특수한 정치 권력이나 종교적 권력에 의하여 저해되거나 강요되어서는 발달을 할 수가 없다. 大學이 社會에 대하여 自由를 지켜 왔다는 것은 社會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 즉 民主化에 대하여 큰 役割을 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社會가 자유스럽게 되면 될수록 大學도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둘째로, 大學은 敎育의 場所이기 때문이다. 특히 大學敎育의 임무는 단순한 學問上의 專門的인 知識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고 大學은 學問的 精神을 전달하는 전당이

다.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學問精神이 있다. 이 학문적 정신은 바로 自由의 精神이다. 大學에 있어서 敎育의 自由는 研究 自由에 부수하여 성립되어야 하는 원칙인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대한 大學의 自由는 어떻게 길러 가며 어떠한 것을 생성하게 하느냐에 있다. 첫째로 眞理의 길은 까다롭고 多岐하며 學術의 바다는 깊고 넓기 때문에 진리의 기관인 大學은 그 自由에 의하여 知性을 함양해야 한다. 둘째로 대학의 자유는 學術과 敎育의 장소로서 상호 협동을 이룩해야 한다. 自由는 협력과 협조가 母體인 것이다. 大學은 鬭爭을 주도하는 政治의 장소가 아니라 진리 탐구와 知性을 전개하기 위한 塔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知性和 協力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大學의 自由 문제는 大學 스스로의 權威 문제에 연관되는 것이다. 우리는 大學의 自由를 목표로 없는 無標準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自由에서 생긴 知性和 協力을 통하여 權威를 높여가야 한다. 즉 자기가 복종해야 할 權威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大學은 특히 法律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國法을 따라야만 한다. 國家의 올바른 權威下에서 大學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그것에 복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大學 자신의 權威에 대하여 잘못된 조치를 취하는 政治的 權威가 있다면 大學은 정당한 범위에서 투쟁해야 한다. 民主主義 국가에 있어서의 大學은 국가에 의지해야 하고 국가 또한 大學의 '힘'을 빌려야 한다. 大學의 權威는 大學 자체가 그 使命에 충실해야 하며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 2) 眞理의 自由

이미 언급했듯이 大學의 使命은 진리 탐구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힘의 근원은 自由의 守護에 있다. 진리 탐구와 자유 수호는 大學精神을 지탱하는 兩大 支柱이다. 그것들은 相互補充的으로 대학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대학 정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시키는 명제들이다. 知識의 正當性과 妥當性은 진리라는 기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때문에 眞理는 大學의 生命線인 것이다. 또한 自由는 진리 탐구의 전제

가 된다. 學問의 自由는 認識論的·政治的·道德的으로 그 정당성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며, 그것 없이는 大學內의 批判的 理性이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大學의 自由精神은 연구와 사고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의 相互作用 속에서 폭 넓게 확산되어야 한다. 진리의 참 가치를 신뢰하고 그것을 받쳐 주는 자유 정신을 내면화하지 못한 大學은 정치적 압력이나 세속적인 관심사의 와중에서 持續的인 자기 와해 과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 3) 全人敎育

그동안 韓國의 국가 발전 논리는 不均衡的·短期的·手段的·官主導的 그리고 物量 위주의 價値生産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왔는데, 그 과정에서 人間의 全人的 發展은 저해되었고 理性·人間性·創意性·自由·勇氣 및 寬容 등 인간 정신의 적극적인 活性化를 포상하는 가치들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교육 과정은 지식과 기술의 단순한 機能的 授受로 인식되었고, 그것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간과되었다.

우리의 교육 환경은 全人敎育을 위하여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며 오늘날의 大學敎育은 양적 팽창만 거듭할 뿐 교육의 질과 환경의 개선은 크게 뒤져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大學이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質的 提高와 人間化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현상을 克服하지 않으면 안 된다.

## 4) 大學敎育의 適實性

우리는 그동안 학문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서구적인 이론을 選別的으로 취사·선택하거나 우리의 체질에 맞게 創造的으로 變形시키는 데는 미숙한 점이 많았다. 아직도 많은 학문 연구가 서구적인 이론이나 모델을 無批判的으로 수용·소개하는 데 그치거나 이를 단순히 모방하는 데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이론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韓國의 現實과 상호 작용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體質化되어야 한다. 이러한 長期的 努力 없이는 서구적 이론은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試行錯誤를 강요하는 適實性이

없는 이론, 實效性이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

適實性의 문제는 敎科課科에서도 표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의 교과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외관상 先進國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適實性의 危機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선진국들이 그들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마련한 교육 과정이 우리 문제의 바른 인식과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國民들의 삶의 質을 向上시키고 世界 文化와 同時代의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선진 국가의 이론과 기술을 가능한 많이 그리고 빨리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韓國이라는 문화적 맥락과 구체적 삶의 현실 위에서 나온 산 知識 없이는 우리의 文化的 主體性은 상실하게 될 것이다.

### 5) 大學의 創意性

大學은 研究機能을 그 1차적 기능으로 하는데 이는 연구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 기능과 봉사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大學은 이러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創意性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리고 大學은 枝葉的이고 一時的인 문제에 관여하기보다는 根本的이고 恒久的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大學에 부여된 使命 중의 하나다. 또한 大學은 국제 사회의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先導者的인 역할을 하여 사회의 미래를 형성해야만 한다. 大學은 인류가 안고 있는 根本的이고 學究的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大學은 끊임없이 創意性을 발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創意性은 大學의 根本的 기능을 발휘하는데 적결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 6) 大學의 融通性

大學의 융통성은 大學 스스로 大學의 屬性을 고수하면서 社會變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大學은 그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機械的으로 운영되고 경직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융통성은 大學의 硬

直性을 탈피하기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조건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大學의 發展과 直結된 要素가 되기 때문이다.

## 5. 結 語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大學은 人類福祉 증진을 위한 理念 형성의 역할을 맡을 뿐 아니라 주요한 改革 構想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단적으로 말해 革命的 變化가 소용돌이 치는 社會에 있어서의 大學은 주변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단절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象牙塔의 存在로 社會에 君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大學은 그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積極的이고 先導的인 指導性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大學과 國家社會와의 상호 작용은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韓國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되고 있다. 挑戰과 反應의 상호 작용 양상은 날로 迅速性·多樣性 그리고 複雜性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하나의 地球村 시대에서 人類 존속의 危機克服을 위하여 大學의 역할은 國家的 또는 地域內的 相互作用線에 머무를 수가 없고 汎世界的 수준으로 그 기능 정립의 폭을 넓히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끝없는 결단을 촉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大學이 自存의 活力을 되찾아 나가려면 國家社會의 요청에 積極的이고 能動的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彈力性을 신장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大學은 地域社會의 필요에 대해서 보다 意圖的인 配慮를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孤立된 섬과 같은 存在가 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大學의 모습은 폐쇄 정책보다 開放政策을 택하여 복잡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리 탐구와 연구에 積極的인 指導性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大學의 根本的 使命은 국가 사회를 啓蒙하는 데 있고, 특히 사회가 直面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責任이 있다 하겠다. \*